

제13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예술

일시 2021.11.2 (화) 14:00 - 17:00

장소 강릉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 (강릉시 강릉대로 454)



주최 |



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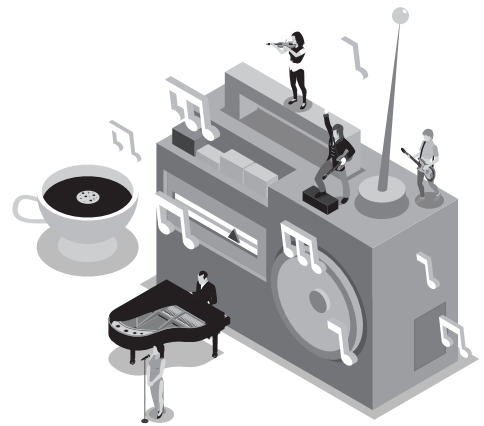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제13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예술

2021.11.2 (화) 14:00 - 17:00

강릉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 (강릉시 강릉대로 454)



프로그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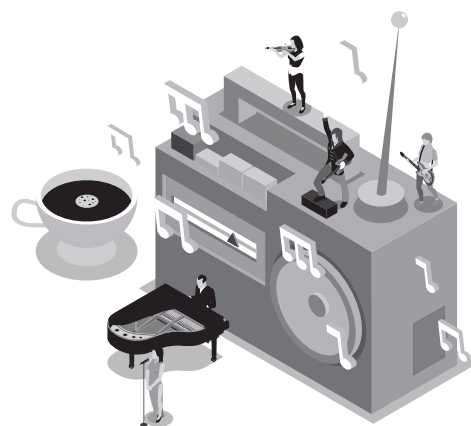
시간	순서	세부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방역 참여 및 참가자 등록	비고
14:00-14:10	개회	포럼 개최 및 행사 안내	이선미
14:10-14:50	발제	예술은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14:50-15:00	휴식시간		
15:00-16:00	토론	토론자 발언	좌장 - 김현경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16:00-17:0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의견 교환	

제13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예술

2021.11.2 (화) 14:00 - 17:00

강릉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 (강릉시 강릉대로 454)



— 목 차

발제	예술은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7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토론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탐색	33
	안재현 (강릉예총 사무국장)	
	‘문화도시’와 ‘예술’ 그리고 예술가	39
	심원 (강릉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문화도시와 예술	43
	심규만 (전 강릉아트센터 기획팀장)	
	강릉에서 예술가로 살기	51
	최지민 (도예가)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은 무엇인가?	55
	김재현 (아트컴퍼니 해랑 대표)	
	문화도시는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59
	류성호 (문화기획자)	

발제

예술은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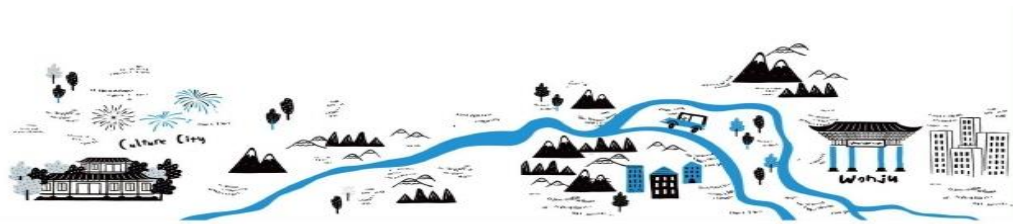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문화도시’와 ‘예술’: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탐색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1. 11. 02



* 본 발제문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은 & 최보연이 공동으로 준비하였음

1

목 차

1

지역문화정책의 흐름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의의

2

문화도시 정책사업 개요 및 특성

3

‘예술’의 변화와 동시대 예술 정책의 화두

4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2

1

지역 문화정책의 흐름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의의

3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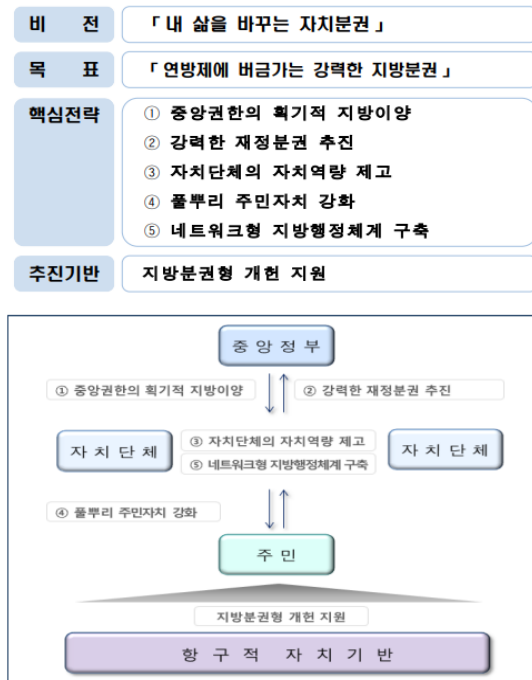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
정책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 발전	▶ 지역 경쟁력 제고	▶ 주민체감 지역발전
프로그램	· 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특화산업 육 성	· 선도산업/전략산업/연고 산업 육성	· 주력산업/협력산업/연고 산업 육성
	· 4개 지역 1단계	· 9개 지역 1단계 · 4개 지역 2단계	· Post 4+9 지역 · 5+2 광역경제권	· 시도특화발전 · 경제협력권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수단	· 수도권 규제 및 지역인프라 조성	· 수도권 규제 및 지방 분산	·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규제 개선
전략산업	· 1시도 1개 원칙	· 시도별 2-3개 · 시도별 4개(균특법)	· 권역별 2개 (1단계) · 권역별 4개 (2단계)	· 시도 주력산업 5개 · 시도 협력산업 2-3개

4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초

- ▶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 ▶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
-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 ▶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 ▶ 주민 수요 둔감한 국가중심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 ▶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

* 출처: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



5

역대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흐름

	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
특징	▶ 지역문화 육성 필요성 인식	▶ 진흥 위주의 지역 문화 정책 부상	▶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 지역사회 및 취약지역 문화 향유기회 확대	▶ 법적 기반 마련과 일상 속 문화융성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을 통한 문화복지 정책 전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진흥의 해(2001) 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역사업의 시작 • 문화 민주주의의 관련 사업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한국 발간 • 지역문화정책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 관련 예산 확대 • 지역문화진흥 중 장기 계획 수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사업 추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진흥 정책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개혁과 도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문화정책의 실제비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 비해, 구체적 성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 예술 지원체계 개선 등 명목과 달리 • 문화다양성과 문화공공성 파괴 초래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중심 정책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

6

현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기조

문화기본법상 문화정책 3대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 ✓ 지역문화 정책은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의 기치 아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해 지역생활문화 증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됨
- ✓ 정책들의 핵심은 '**지역문화분권 실현**'으로서, 지역문화 분권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
- ✓ 분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 '**프로세스**' + '**생태계**'를 강조하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 발표 및 실행**
- ✓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지역문화기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학습 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이 추진되고 있음

7

홈 > 지역 > 원주

'창의도시' 원주, 문화도시 선정 청신호

A 정태욱 | 10 일력 2019.11.05 | 12면 | 10 댓글 0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
문체부, 오는 12월 최종 확정
선정 땀 5년간 100억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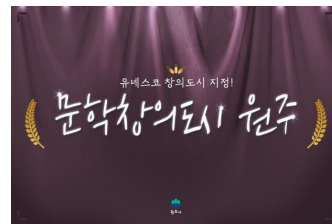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으로 국내 첫 '문화도시'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비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오는 12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앞두고 문화미래인재 양성, 문화연대사업, 문화작가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4월 민간 중심의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조직, 이들 문화 사업을 주도 또는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가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지정 전망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원주가 '문학' 분야에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하며 문학도시로서 세계 무대와 교류하는 공식 네트워크를 갖는 등 문화 위상이 격상했기 때문이다.

또 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추진키로 한 생명과 평화문학 기반 문화 투어 개발, 그림책 스토리텔링, 문화과 한지 연계사업작가 레지던시 확대 등도 문화도시 도약의 탄력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국내 1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국내 법정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도시가 된다.



원주시

원주시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지정

-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

8

뉴스룸 | 최신기사

춘천·강릉 제2차 문화도시 최종 지정...5년간 최대 200억원 지원



춘천시 문화도시계획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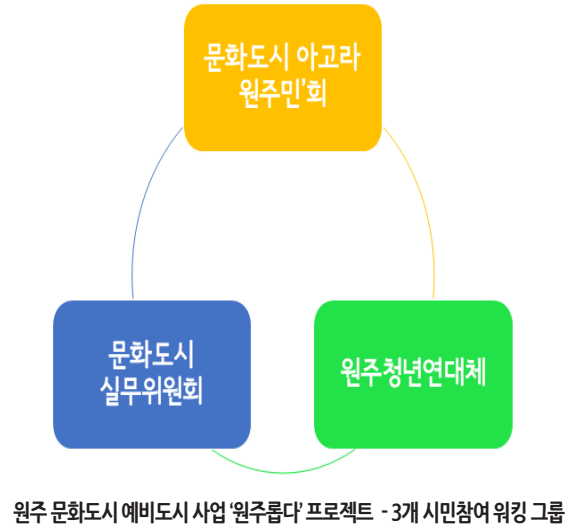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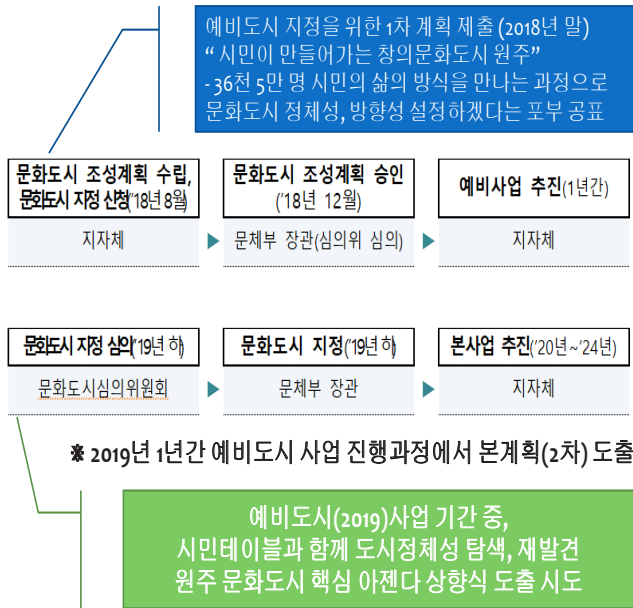
9

원주 문화도시 1차 계획 - 비전, 전략 (2018년 말, 예비도시 선정을 위해 제출했던 버전 기준)

비전	시민이 만들어 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목표	문화와 도시발전(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가능한 공진화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방향	참여	혁신	지속	포용
핵심 가치	문화주권	문화적 재생	공유경제	문화협치
전략 과제	생명문화기반의 사회·문화·경제 거버넌스구축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구축을 위한미래인재 양성	지역문화콘텐츠 중심의취향기반 공동체활동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정체성구축

10

원주 문화도시 조성계획(본사업 계획 도출 과정)



원주 문화도시 조성계획(본사업 계획 도출 과정)



원주 문화도시
6대 도시정체성, 81개 실천과제 도출

구분	인원	연령대	구성원 특성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회	13인 (운영위원 7인 시민위원 6인)	50~60대	도시, 문화정책 및 시민 문화활동 이력 보유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7인	40대	공공 및 민간 문화도시 추진 연계 네트워크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원주청년연대체	13인	20대	시민사회 및 문화기획 활동가

※ 정체성 의제 라운드테이블 7회, 어반플래너 통합회의 1회, 문아리 살롱, 100인 원탁회의('19.9월), 다시 모이는 100인 원탁회의('19.11월)

원주 문화도시 비전과 6대 정체성 의제



- ▶ 원주의 도시정체성을 6개 요소로 파악
- ▶ 2개 층위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설정

▶ 역사적 정체성

- 저항실천, 포용성장

▶ 문화적 정체성

- 생명존중, 일상예술, 소통공감, 협동나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13

“문화도시” 사업의 파급 효과

- 1) 문체부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사업 규모와 범위, 방식
- 2)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정체성 발굴 기회 제공: 내러티브
- 3) 지역 문화기획자, 문화단체 들의 역할 가시화, 네트워킹
- 4) 기초자치단체 장들에 문화 정책 관심 제고: 100/226개
- 5) 지자체들의 정책 현장에서 ‘문화’ 영역 위상 확대 등

14

2

문화도시 정책사업 특성 및 개요

문화도시란 ?

- ▶ 문화도시
 -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도시정책 사업
- ▶ 제2조 (정의) 문화도시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 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함
- ▶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 ▶ 도시가 고유하게 가지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창의적-혁신적 지역성장 및 발전을 성취하도록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

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적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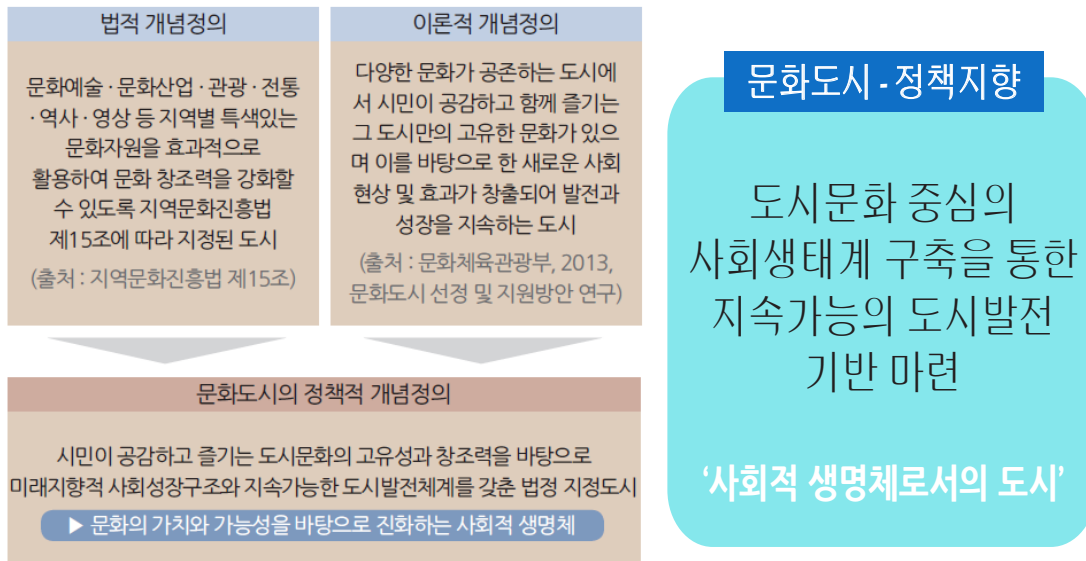


그림 1 |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일반 정의

“문화자원을 단순히 예술이나 문화인프라 차원의 콘텐츠로서 소모하는 접근이 아닌,

모든 시민이 가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문화자원으로 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 자체를 문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반적인 정책적 노력**을 의미!

문화도시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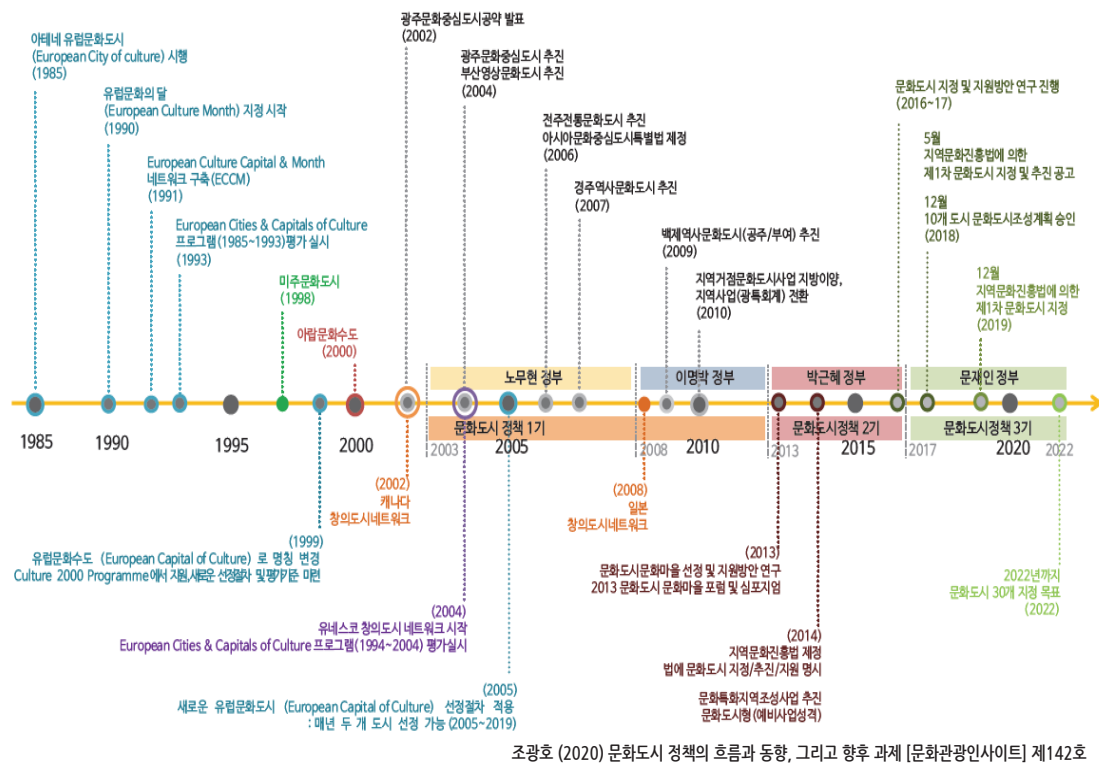
- ▶ 1년간의 예비도시 지정, 이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총 사업비 최대 200억** (100억 국고 + 100억 지방비: 국고-지방비 매칭사업),
 - ▶ 이후 도시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지속을 전제
- ▶ (사업모델의 궁극적 지향/목적)
 - ▶ 도시의 문화와 관련된 종합적 계획과, 기획, 경영을 통한 **새로운 사회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한편,
 -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조와 효과를 창출하는 것**
- ▶ “도시의 문화 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p.2)

19

왜 문화도시인가?

- ▶ (추진배경)
 - ▶ 2000년대 탈산업화 시대 도래, 산업경제 중심으로 진행된 과거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전환의 필요성이 서구사회 중심으로 먼저 제기되었음
 - ▶ 유럽(EU) 문화수도(1980년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2000년대 초반) 등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이끌 새로운 이슈, 의제를 발굴하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비전에 관심을 가지게 됨
 - ▶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유럽 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 + 한국적 컨텍스트에서의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공감대 형성 본격화
-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20



문화도시 추진 방향 및 내용

▶ (사업추진 방향)

- 시민참여 기반, 전문가 - 공공행정이 함께 기획, 추진하는 공동거버넌스 구축
- 인적자원(사람)+운영자원(프로그램/소프트웨어)+공간 및 시설(하드웨어) 종합활용
- 문화도시 - 타 부처, 기관/단체 간 사업의 연계 및 융합 적극 모색

▶ (주요 사업 내용)

- 도시문화의 경영-관리 전문조직으로서의 문화도시센터 운영
- 문화기반 사회자본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
- 문화기반 사회적 실험, 창업육성, 문화재생을 통한 창의문화지구 형성 등

문화도시 사업: 핵심 특성 4가지

지역 고유성
자율적 주도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의 우선성



프로세스(과정)
자체의 중요성



문화 영역 넘어
도시전체파급성

- 지역 제안형 설계
- 사회적 인지 공유, 공론화 과정 통한 상향식 추진 방식

- 시민 참여와 결정 기반으로,
- 시민 - 전문가 - 공공이 함께 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

- 사업추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도시 문화 범주로 설정
-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체계에 대한 관심

- 문화 영역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 도시기획, 경영체계를 통한 도시 전체 효과
- 문화 '도시' 지향

23

3

‘예술’의 변화와
동시대 예술 정책의 화두

24

‘예술’ 개념의 시대적 변천: ‘창조산업’의 시대?

- ▶ 창조예술(creative arts) +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 고대의 황금시대(BC 5세기-그리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Techne**와 **Musike**
- 르네상스(1550-이탈리아-바사리): **미술(디세뇨)**
- 계몽주의(1746-프랑스-바뮈): **예술(보자르)**
- 대중사회(1947-독일-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문화산업**
(Culture Industry → **cultural industries**)
- Globalisation, Digitisation, Hybridisation(1997-영국-DCMS): **창조산업**

25

예술 ‘개념’의 변화에 뒤 이은 예술 ‘이론’의 변천

모방론	(신)고전주의 예술	[호레이스, 다 빈치, 바사리], 바뮈 등	이상적인 자연의 모방 을 위해 고대의 전범을 따라 철저하게 규칙을 실연하는 합리적인 과학자
표현론	낭만주의 예술	[쉴러, 헤겔], 톨스토이, 크로체, 콜링우드, 랭거	이성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감정을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 자율적이고 감성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천재
형식론	추상예술 (모더니즘)	[칸트], 클라이브 벨, 그린버그	이성의 법칙은 물론 감성의 표현이란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 장르 및 개별 예술 작품의 순수한 형식 또는 의미 있는 형식 을 제대로 구성해내는 창조자
예술정의 불가론	전위예술 (다다를 필두로 한 아방가르드)	[비트겐슈타인], 모리스 와이츠	예술작품 및 예술가의 객관적인 본성 또는 필요충분조건에 관한 논의는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됨
제도론	상동	조지 딕키	비가시적인 본성으로서 제도(즉 예술계)의 ‘자격 수여’ 에 주목하는 접근
다원론	68혁명 이후 예술적 실천	아서 단토	헤겔과는 달리 부정적인 함의가 제거된 ‘예술의 종언’을 선포하고 monism 을 거부

26

예술이론의 변천, 거시환경의 변화 & 새로운 트렌드와 지향의 확산

예술의 종언 시대, 자유로워진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중엽 태동한 예술 개념은 이후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의 시대를 거쳐 20세기 중엽 이후 예술정의 불가론, 제도론의 시대를 거침 • 예술 정의의 배타적 접근을 거부하는 '예술의 종언' 시대, 다원론은 예술을 모더니즘적 강박에서 해방 	• 예술개념 및 예술이론의 변천
급변하는 PEST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예술활동은 물론 예술정책의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 축적 •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가 견인하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연결성 시대인 4차 산업혁명 도래 	• 예술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
예술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예품 거래 사이트 '옛시' 증시상장 (1조원) • 메트 오페라 영상을 사업 연수의 426억원 • <태양의서커스>, 1.7조원에 중국계 사모펀드 매입 • 사도 무통 로컬드 와인 라벨에 이우환 작품 게재 	• 예술계 내외 새로운 트렌드 및 지향의 확산

*cf. 정종은(2017) 예술의 산업화 지원정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예술경영연구>

27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지구적 유행! (1997~)

* 창조산업의 정의:

‘개인의 **창조성**, 솜씨(skill), 재능(talen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적 재산**의 발생 및 이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활동들 (activities)’을 의미한다.

* 창조산업의 범위(13개 핵심 영역)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디자이너 패션, **영화**, 쌍방향 레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예술** + **문화산업** + 첨단 정보산업)

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정책의 부상! (2016~)

- ✓ 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간의 현행적 구분을 존중하면서,
- ✓ 예술활동을 비영리섹터와 영리섹터로 나누어 접근하는 두 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옵션임
- ✓ 각 층별로 구분되는 정책 대상, 주요 장르, 정책 지원 방식, 핵심 진흥기관 등은 다음과 같이 거칠게 구분해볼 수 있을 것

	정책 대상	주요 장르	정책 지원	핵심 진흥기관
3층	문화콘텐츠 산업	텔레비전, 영화, 음악, 연예, 라이브공연, 캐릭터...	예술산업과의 콜라보 및 융합 촉진	콘텐츠진흥원
2층	예술산업 (영리섹터)	뮤지컬, 옥션, 디자인, 웹소설, 공예...	사업자금 투자, 전후방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1층	기초예술 (비영리섹터)	클래식음악, 미술, 순문학...	창작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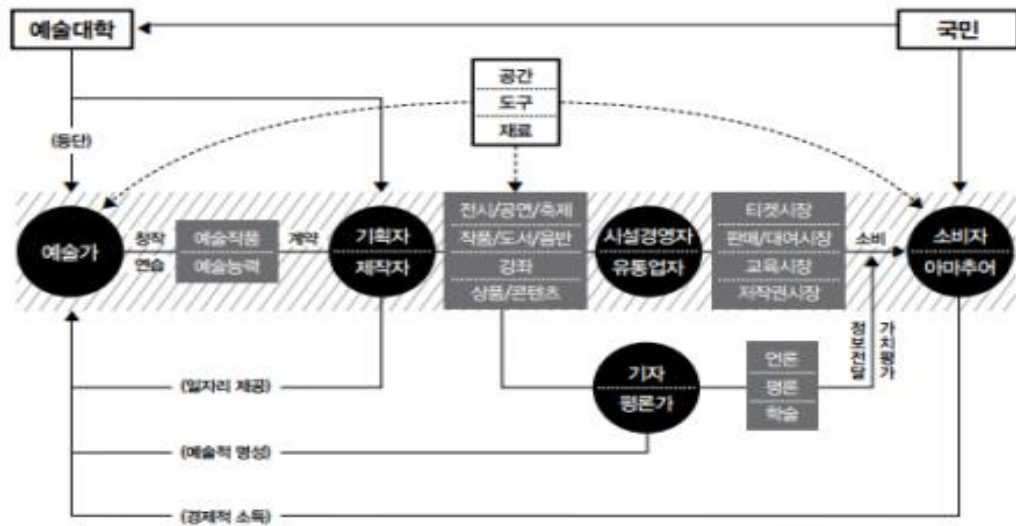
- 아도르노의 '문화산업' 비판의 교훈: '예술산업 진흥'은 소프트 파시즘과 같은 의미에서 **전체주의적인 '예술의 상업화'**를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이 경우, 예술의 본유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음
-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 예술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장성 있는 일부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보다는 투자적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함
(cf. 2016. 문체부 예술산업 TF 내부 자료)
- 예술의 대중화로 수요가 늘거나 특정분야에서 팽창하는 공급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창작 일반도 지원에서 유통-재무-홍보 등의 분업화, 전문화를 통한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주체들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도입되어야 함(**예술에 대한 산업적 지원방식 도입**)

30

국내 예술정책 이슈(1) 순수예술/기초예술의 관객 개발

✓ 예술분야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전문성에 기반한 특화 및 분업이 자리를 잡아야 하며,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지역 분권 고려)

- 기존의 예술 애호가 시장에서 레드 오션을 겨냥한 제로섬 싸움은 정답 아님
- 100조원을 돌파한 문화산업 시장의 관객들을 어떻게 예술시장으로 유인할 것인가?



*출처: 양현미
(2013: 11)

31

국내 예술정책 이슈(2) 새로운 동력으로서 '예술산업' 육성

✓ 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예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주목됨



*출처:
정종은(2017)

32

국내 예술정책 이슈(3) 예술 시장의 전후방 연관산업 진흥

- ✓ 예술시장 활성화는 물론 보다 넓은 의미의 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용품산업과 파생상품의 동반성장 기반 조성 필요

- 예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상과 및 생활예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으로 일상 속에서 예술이 갖는 가치와 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이로 인해 예술 활동(창작, 향유)과 그 결과물(예술작품)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예술시장의 ‘전후방 연관산업’ 역시 주목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 예술정책은 예술 창작에 필요한 용품 시장(후방 연관산업)과 예술활동의 결과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시장(전방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음
-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기존의 예술 애호가 시장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을 예술가들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향유 확대는 물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다각화하고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기여 가능



33

국내 예술정책 이슈(4) 예술대학 교육 커리큘럼 재편

- ✓ 예술종언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술대학 교육은 모더니즘적 패러다임 추종

-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당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수가 유럽에 비해서 3~4배 정도 많다. 유럽의 예술 향유율이 우리나라의 3~4배 정도 된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예술시장은 작는데 예술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다.”

(ooo 교수)

- “국내의 연출가가 100명이라면 자신의 명성과 경력에 기대어 자유롭게 작품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97명은 기존의 예술계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실험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예술 역량 발휘를 통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예술가로서 ‘조물주’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모더니즘 교육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배운 대로만 작업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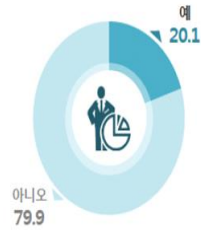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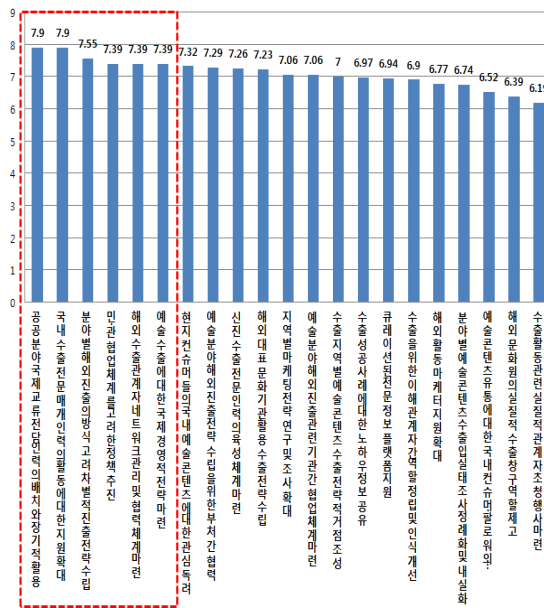
(ooo 연출)



34

국내 예술정책 이슈(5) 예술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수출주도 산업화(EOI) 및 문화산업 중심 한류 경험을 반영한 해외진출 고도화



* 지난 1년간 외국에서의 예술 활동 현황

분야	경험 있음	분야	경험 있음
문학	5.7	국악	22.4
미술	29.6	무용	27.6
공예	24.7	연극	11.9
사진	21.3	영화	7.3
건축	9.3	방송	8.1
음악	20.7	만화	19.8
대중음악	21.9	기타	27.5

* 분야별 외국에서의 예술 활동 현황

*예술분야 에이전시들의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요 델파이 조사 결과
(출처: 정정은·김현경, 201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

종합: 다섯 가지 이슈 해결 위한 생태계적 관점 필요



1. '기초예술' 가치사슬의 분업과 협업 촉진
2. '예술산업'의 견인차, 예술 스타트업 육성
3. 예술용품 시장과 예술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4. 전문인력 배출 위한 현장/프로젝트 기반 커리큘럼
5. 국제교류를 넘어 매개적, 직접적 해외진출 지원 확대



4

예술은 '문화도시'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37

문화도시/창조도시에 대한 서구의 접근

1. 문화사회

'시민기획위원' 프로그램

노동시간을 줄이고 직무 공유를 통해 실업을 줄이는 것이 핵심.

노동시간 ↓ 자유시간 ↑

사람들이 소비사회의 물질적 욕구에 포획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내적 욕구를 살리는 문화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생활 확대, 문화산업 성장

사회를 정치경제문화의 삼분 모형으로 파악했을 때 정치와 경제는 문화를 위한 구조적 수단. 문화화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경향

자립적 생활예술경제 형성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소비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경제 수립

1985년 시작 된 유럽문화도시 사업

매년 유럽의 도시들 중 한곳으로 유럽문화도시 '지정. 전체 유럽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 1999년 '유럽문화수도'로 바뀌었는데 이것 유럽문화도시를 더욱 강화

문화도시의 기본원칙

유럽의 도시들은 자연과 역사를 지키고, 주민들을 존중하며 예술적 수준으로 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1980년대 초 뉴욕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큰 성과를 이룸

문재인 정부

한국의 지역 쇠퇴의 핵심에는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자리하고 있음 한국의 지방 중소 도시가 최고의 모범으로 삼고 배워야 할 곳은 작은 크기와 낙후 상태를 문화도시로 혁신한 유럽의 도시들임

2. 문화도시

3. 창조도시

1997 영국과 유럽 창조산업

문화라는 결과보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인 창조를, 그리고 그것의 원천인 창조성을 강조하는 것임 창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주체인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됨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런 변화는 더욱 강화될 것임

자치구별 생활예술 지도작성

창조도시는 1990년대 후반에 창조산업/창조경제가 널리 확산되며 도시의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유네스코의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증가

유네스코는 창조도시에 대한 큰 관심을 적극 수용해서 2004년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현재 7개 영역에서 72개 국의 180개 도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38

21세기 혁신의 중핵, 창조성

“창조성은 파괴보다 창조가, 그리고 현학적인 규칙에 얽매어 생기를 잃는 것보다 상상력을 가지고 도약하는 것이 더 나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주요한 가치를 갖는다.

창조성은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완성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개성적이고, 민감하고, 지적인 인간 존재로서 우리들 **각각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창조성은 본래적으로 사회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며, 우리들을 인간으로서 함께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은 **경제를 위해서**, 곧 그것을 잘 육성하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성장하는 산업에 대해 그것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Chris Smith, 1998: 148)

39



랜드리와 플로리다, 창조도시 전략의 두 거물



▶ 기능주의와 형식주의 도시계획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 문화적 섹터와 여타 섹터의 대화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체적으로 기능하는 도시

▶ 구성원들의 창조성의 대상-원인이 되는 예술작품으로서의 도시

▶ Creative Milieu / Design scape

◀ 찰스 랜드릭 해석 ▶

▶ 창조계급은 미국 노동인구의 30% 정도로서 서비스계급에 이어 2위이지만, 경제력 만큼은 단연 수위

▶ 게다가 숫자와 경제력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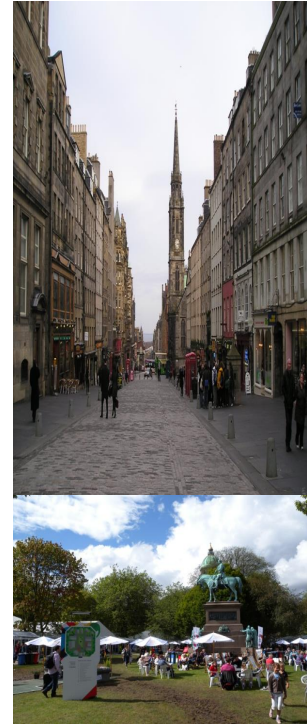
▶ 3T로 호소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Tolerance – Talent – Technology)

▶ Talent Magnet

◀ 리처드 플로리다 해석 ▶

영국사례(1): 축제도시, 에딘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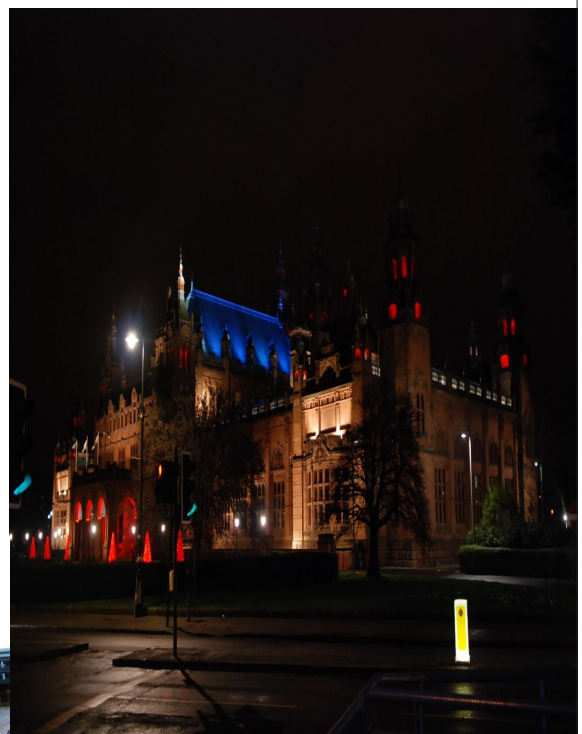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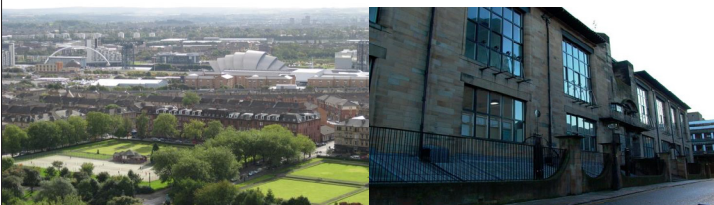
인터내셔널 페스티벌(1947)	이차대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인간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첫 페스티벌
프란지 페스티벌(1947)	258개 공연장, 607개의 무료공연포함 2,542개의 공연, 공연자만 41,689명 (2008)
인터내셔널필름 페스티벌(1947)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영화페스티벌
밀리터리 타투	매년 22만장 정도의 티켓이 팔리는 세계 최대의 군악대 축제
재즈&블루스 페스티벌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재즈 음악 축제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도서 축제
에딘버러 멜라	영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축제의 하나
미술 페스티벌	1966년 호지부지 되었다가 2004년 부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2004년 최초의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선정
호그마니	런던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새해맞이 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수백명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초청
이미이지네이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국 최대의 축제



41

영국사례(2): 유럽문화수도, 글래스고

- ▶ 1990년 유럽 문화수도,
- ▶ 제국의 두 번째 도시,
- ▶ Glasgow miles better, Scotland with Style
- ▶ 80여 개의 공원과 13개의 시 운영 박물관
- ▶ 아담 스미스, 제임스 와트, 캐빈과 블랙, 세계 최초의 자전거, 세계 최초의 어린이 병원, RSAMD, 세계최초의 축구 더비(올드펌 더비)
- ▶ 아마딜로(노만 포스터), 리버사이드 뮤지엄(자하 하디드), 캐빈그로브 뮤지엄...



영국 사례(3): 유네스코 창조도시, 브래드포드

- ▶ 에든버러, 글래스고에 이어 영국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됨 (영화로는 세계 최초)
- ▶ 각종 규모의 영화제가 연중 골고루 배치되어 관객을 끌고 있으며, 영화학과 졸업생의 50%가 브래드포드에 남기를 희망
- ▶ 기함건축물로서 ‘국립미디어박물관’:
사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통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시관 보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관련 영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시설
- ▶ 창조적인 추진체계와 협력체계:
“스티브 애봇”의 결정적 역할



국내 12개 1, 2차 법정 문화도시들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는??

- ▶ 지역 고유의 **자율적 주도성** 확인됨
- ▶ 시민 참여형 Bottom-up 설계 방식에 투영된 **시민거버넌스의 가능성**,
- ▶ 점점이, 꾸준히 한 발씩 나가는 **과정적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
- ▶ 지역 **고유의 도시 정체성** 발견, 재발견을 통한 **도시 생태계 전략** 모색 有
- ▶ 그런데 **예술의 자리**는??

* <원주 문화도시 사업계획>의 사례

1그룹 - 전문가 선정 8대 과제

순위	정체성	선정 과제
1	저항실천	문화도시추진 전문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 경영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저항실천	원주형 문화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3	저항실천	지역리서치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문화정책 R&D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	소통공감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원주롭다'를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
5	포용성장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거점공간 운영하여 연계공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6	소통공감	문화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7	소통공감	지역문화의 브랜드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해 유동을 활성화 하고 도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8	저항실천	원주 정체성 의제 6가지를 정립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도시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그룹 - 시민 선정 우선순위 10대 과제

순위	정체성	선정 과제
1	포용성장	놀러오기 좋은, 즐길거리가 많은 원주가 되겠습니다.
2	일상예술	전문복합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	포용성장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공간 점검하고, 시민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기존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4	일상예술	'예술인의 삶' 관점에서 문화예술생태계를 점검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5	생명존중	개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진단하고 방법을 찾는 생활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	일상예술	1인 1취향의 도시로 개인의 취향발견을 돕고, 취향기반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	저항실천	우리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	협동나눔	돌봄을 둘러싼 관계망 안에서 돌봄의 수혜자, 노동자, 운영주체, 그들의 가족을 배려하는 돌봄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9	생명존중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서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생명도시가 되겠습니다.
10	저항실천	시민의 창의활동 지원을 통해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5

1그룹 실천과제(도시 문화경영 시스템 강화/전문가 선정)

- 1)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역할 정립, 지속가능 경영관리 역량 강화(1-6)
- 2) 원주형 문화지표 개발(1-7)
- 3) 지역리서치프로젝트 기반 문화정책 R&D 역량 강화(1-8)
- 4) 원주 정체성의제 6가지 정립, 연구보고서 발간, 도시철학기반 구축(1-8)
- 4)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원주롭다' 구축, 운영(5-7)
- 6)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운영(5-6)
- 7) 지역문화 브랜드마케팅 역량 강화, 유동활성화, 도시가치 제고(5-6)
- 5) 문화생태계 조성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거점공간 운영, 연계공간 전략(4-5)

(특성)

- 문화도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에 주도적 전략적 추진 필요 사업 중심
- ex.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역량 정립 및 강화 등 강조

저항실천

포용성장

생명
존중

일상
예술

소통
공감

협동
나눔

* 원주 문화도시 조성계획 상의 전략 과제 및 우선순위 과제 구성

- 5) 개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진단, 해결하는 생활만들기 운동(2-10)
- 9) 원주시민 누구나 삶의 가치 상호 인식, 존중하는 생명도시 건설(2-14)
- 2) 전문복합 문화예술공간 확보(3-2)
- 4) 예술인 삶 관점에서 문화예술생태계 점검, 지역예술인 삶 지원(3-3)
- 8) 1인1취향, 취향기반 공동체 활동 강화(3-3)
- 7) 우리 도시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1-9)
- 10) 시민 창의활동 지원을 통해 스스로의 꿈 실현 지원(1-13)
- 1) 놀러오기 좋은, 즐길거리 많은 원주로 만들기(4-2)
- 3) 일상 속 시민 공간 점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기존 공간 개선(4-7)
- 6) 돌봄 수혜자, 노동자, 운영주체, 그들의 가족을 배려하는 돌봄문화 형성(6-7)

2그룹 실천과제(시민선정 우선순위 10대 과제)

(특성)

- 시민직접 선정의의
- 지속적 시민테이블 논의 거쳐 사업화 추진 전제
- ex. 일부 선연적 의제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추진 의지 주목됨

46

영국의 대표적인 창조도시 사례들은
예술이 **본유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모두 발휘하며,
도시의 미래를 빚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 강령은...**

1. 축제도시 **에든버러**의 단계적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상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쇠락하던 산업도시 **글래스고**의 운명을 뒤바꾼 결정적 계기와 결정적 모토가 있는가?
(Identity = Narrative + Evidence)
3. **브래드포드**의 영화 주도 지역혁신체계의 혁신 리더(스티브 애봇)와 코어 그룹 역할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47

Thank You!!

정종은 (Kultur18@sangji.ac.kr)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 / 정부미술품운영위원회 위원 / 원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위원장

(현) 문화체육관광부 길위의 인문학 평가위원 / 여가친화기업 인증위원 / 문화영향평가 전문위원

(현) 한국문화경제학회 / 한국예술경영학회 / 현대미술학회 이사

(현) 등재 학술지 <지역과문화> 편집위원,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 <미학> 편집위원

(전) 문화도시 컨설턴트 /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전문위원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웹진 <문화관광> 편집위원

(전) 메타기획컨설팅 Knowledge본부 부소장 / 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융합공방 프로그램 디렉터

48

토론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탐색

안재현

강릉예총 사무국장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탐색

강릉예총 사무국장 **안재현**

● 문화도시 사업 속 예술의 위상과 역할 탐색 - 공감 키워드

[지역발전 정책 기초]

중앙집권 분산

비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핵심전략 - 네트워크형 지방분권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 -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문화기획자, 문화 단체들의 역할

[개념 및 정책 지향]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

-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생명체

[문화도시 추진 방향]

인적자원 + 운영장원 + 공간 및 시설

['예술' 개념의 시대]

창조예술 + 문화산업

전문 문화예술 공간 확장 - 문화예술 생태계 - 지역 예술인 삶 지원

개인 취향과 공동체 활동 조화

● 지역생태환경 + 예술 · 지역예술인 · 단체 + 네트워크(사람, 공간) - 제안 키워드

지구온도 1.5도 오르면 경포 해변 잠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대기온도가 현재 보다 1.5도 상승할 경우 강원도 내 주요 해안가 및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7번국도 일원과 동해안 지역 일부 주택가와 주요 공공시설이 물에 잠겨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본지가 기후과학 전문분석 비영리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진행한 ‘기후변화연구단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구온난화에 따라 동해안 일부 지역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는 산업화 이전 보다 이미 1.2도 높은 상태다. 기후 위기에 따라 지구 대기온도 상승 폭이 0.3도만 더 올라도 전 세계적 침수 현상이 불가피해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060년대부터 지구 대기온도 상승폭이 3도 이상으로 전망, 도의 경우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지구 대기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등 7개 시군 주요 해변이 사라진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강릉시로 경포해변과 안인·안목해변 등 도 대표 관광지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됐다. 동해시와 속초시, 고성군 등도 주요 해변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초시와 고성군은 3.0도 상승하면 시·군청 턱밑까지 물이 차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한 벤자민 스트라우스 클라이밋 센트럴 수석과학자는 “전례 없는 해수면 상승 방어조치를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박명원 출처: 강원도민일보 2021. 10. 20

지역에서 서로 했으면 했던 막연한 생각들은 있었으나 다소 간과되었던 필요 일들에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 분야 여러 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들의 참여와 역할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소소한 만남과 일의 이루어짐은 중요한 성과이며 긍정적인 작용이라 생각된다.

이런 작용에서 더욱 여러 갈래 가지가 뻗어져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변해가는 지금 일상의 풍토에서 알면서도 혹은 바람은 있으나 딱히 한 곳에서 다 해결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같이 고려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문화도시 사업에서 조금

씩 실마리를 풀어보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 **사람 사는 일상의 정서작용**(공교육의 한계를 메울 수 있는, 보편적 인성의 회복)

- 지역 사회에서 보편적 공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하는 필요충분 기대욕구가 있다.
- 연령, 계층 등 유사한 정서 범위에서 좁아진 관계 극복
- 장년, 노년층의 소외 현상 극복, 세대 간 일상의 격차 좁히기
- 개발과 지식 교육 혹은 기능적 생산 프로그램 보다 사람 사는 정서의 어울림과 나눔 필요,
- 지역 중심의 생각과 긍정적 작용 지향

▶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교점**(형식에 묶임을 풀면서 유연한 교류)

- 지금 까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교감을 만들고 있는데, 더 많은, 필요할 만한 어울림을 생각 해 보았으면 한다.
- 예술가-예술단체 + 시민(일반 누구나, 학생) + 정서적 필요 수요자
- 전시장 유연한 공간기획, 일상의 공간 활용, 온라인 사랑방
- 전문예술 활동, 전문예술가들의 지원 위축과 역 소외감 현상 고려

▶ **생태환경에 대한 필요생각들**(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 인식확대 · 공감대 확장)

- 기후변화의 심각함 인식, 공유
- 온도상승, 평균을 벗어난 더위와 추위, 해수면상승, 수종 및 작황의 소멸, 생명의 파괴
-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자원화 및 재생산
- 배달 앱의 불법 · 난폭 · 위협 운행 개선
- 1회 용기사용 자제, 쓰레기 줄이기
- 해변에서 관광객들의 ‘폭죽금지’,
역으로 도시에 가서 우리가 폭죽을 쏠 수 있겠는가? 수도권 도시 관광객들이 강릉의 바다에 와서 폭죽을 쏘는 것 방관해야 하는가? 시 행정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에 한계가 있고 경찰도 시 행정의 부족한 시간에 대한 지원의 역할

정도 할 수 있다고 함, 단속을 한다거나 강제로 제어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 생태환경의 어필과 예술과 어울림 · 조화 → 예술생산 → 인식의 매개물 생성

토론

‘문화도시’와 ‘예술’ 그리고 예술가

심원

강릉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문화도시'와 '예술' 그리고 예술가

강릉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심원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쓰는 것이니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도 진지하게 예술에 접근했던 탓에 붓을 들고 단 한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창작은 그저 고통이었고 어느 순간 생계와 직면해 예술교육으로 눈을 돌렸을 때 예술은 까맣게 잊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걸음 뒤에서 지켜본 최근 문화도시로 가는 길 위의 예술 확장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세계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10년 만에 캔버스도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발제해주신 문화도시의 정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 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입니다. 예술은 문화에 엮여 작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위 문장의 모든 단어에 예술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술가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각자 고민의 발현과 방향성, 역할의 문제이지 예술가 모두가 활동가나 로컬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의무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뉴딜형)를 진행하고 예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려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창작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면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정책의 수립하거나 방향 수정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또 하나 지역의 문화가 예술가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보면 창조 또는 창의는 어떠한 기반의 완성된 장르와 새로운 상상력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는데 있습니다. 이미 예술가들은 창의적인 문화도시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은 여전히 쇠퇴와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의 평균연령은 제

나이와 비슷해졌으며 매체의 변화와 정보의 과잉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문화를 획일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문화, 예술 또는 다양성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문화도시의 동력과 예술 창작의 원천으로 순환된다면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예술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크’로 ‘아카이브’로 모두의 삶 자체에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토론

문화도시와 예술

심규만

전 강릉아트센터 기획팀장

문화도시와 예술 - 강릉은?

전 강릉아트센터 기획팀장 **심규만**

강릉,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애정에서 출발하는 몇 가지 단상이다.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이다. 강원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환경과 자연혜택이 지역 주민의 삶 속에 녹아 있다. 스친 표면적 인식 출발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대한 자본이나 시대를 관통한 역사의 흔적, 혹은 멋진 건축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는 **그곳에 삶을 살아가는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의지와 굳은 신념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존중받는 분위기의 도시 만들기. 문화도시와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종은 교수님의 발제는,

역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의 흐름과 문화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나 특성을 잘 살펴보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문화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념을 살펴본 것이다.

법정문화도시 원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진행 과정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여타 지역에서 준비하는 문화도시로서의 과정이나 지역 문화환경을 이해하는 과정과 다른지 않는다.

현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개성은 문화도시로 지정된 다른 도시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도시와 예술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출발선이다.

생각해 보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중소규모의 도시는 그 비슷한 타 지역의 도시보다는 이미 오히려 문화도시가 아닌가? 일반적 예술 활동을 포함해서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구체화된 목표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변보다 이미 문화도시로 더욱 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정된 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가진 문화도시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주변 도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사업 전부터 상대적인 문화도시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는 당연히 시민들 참여와 고유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나만의 시각인가?

강원지역 살펴보고, 전국 선정도시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1차 법정문화도시: 부천, 원주, 청주, 천안, 포항, 서귀포, 부산영도

2차 법정문화도시: 춘천, 강릉, 인천부평구, 전남완주, 경남김해

3차 예비문화도시: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 전북 익산과 고창군, 그리고 전남 목포, 경북 칠곡군과 경남 밀양이다.

문화도시와 예술에 대한 몇 가지의 물음은 생긴다.

역대 정부 지역문화정책 흐름에서 그 방향성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현장과 그 중심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현 정부에서 중앙 집중식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에 힘을 들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기존 정부의 문화정책과 다른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이전 정부에 시작된 정책으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나, 문예회관 중심의 ‘방방곡곡’ 사업의 취지는 좋다. 그렇지만 가령, 문화바우처 지원받는 소외계층이 그 문화현장에 올 수 있는 실제의 여유 시간과 이동수단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 문화복지 향유가 문화도시와 예술 관점에서 비중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둘 수 있는 것인가? 공연장에서는 소외계층 객석 비중을 오히려 줄여달라는 요구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문화정책 기조가 당연히 문화 분권의 실현이라면, 주민 스스로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여유있는 시간대 관심 있는 특정 계층이나 그룹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물음을 한적 있는가? 시민 스스로 자생적?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적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단기간에 스스로 육화되기에는 너무도 지난한 세월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공론화 시켜낼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둔 문화도시란 정의는 너무도 명확하고 좋은 의미로 다가온

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결국 지역정체성 확립과 문화기획자, 단체 역할에 대한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고, 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단 시간의 관심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5년간 집중적인 사업비 지원을 통한 좋은 기회가 생겨나는 것이다.

다만, 의미처럼 지역에 발을 붙이고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대다수 주민에게 피부에 다가올 수 있을까?

지나가면서 드는 단상은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릉이라는 도시의 현실 문화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아웃랜드를 즐겨보는 시민이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스타벅스에서 책 읽고 있는 것만으로 생활 예술 활동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근진 바닷가 소나무 숲 캠핑의자에 앉아 책 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송정해변에 자리피고 앉아 와인 마시고 있는 분은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지역생활문화현장의 괴리는 아닌가? 명주동이나 옥천동 작은 골목길 아기자기한 숨을 찾아다니고 그 골목 정겨움을 느끼는 젊은이는 대부분 관광객이라는 현실은 지역주민 시각에서는 문화도시 진행으로 의미 있는가? 감각적 상업공간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지역문화정책속에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

양양해변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서퍼는 양양주민이 아니고, 주민 삶과 무관한 해변의 그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지역문화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문화도시와 예술의 지향은 그저 골목길 벽화와 카페의 인디밴드 음악만이 정당한가?

대규모 문화산업적 공연이나, 공연장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문화도시 방향성과는 멀리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오히려 문화도시 예술 활동의 큰 축으로 담당할 수 없는가? 지역 주민 삶과 동떨어진 행위인가? 문화도시와 예술 활동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나훈아 콘서트 현장에서 그야말로 정말 행복해하던 특정나이대의 그 계층의 모습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지역 예술, 문화산업 육성이 아닌가? 지금 강릉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지역예술 페스티벌과 같은 선상인데, 왜 다른 것도 아닌 틀리게 인식되고 있는가?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고유한 개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기본에는 시민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성을 잡아가는 과정들이 효과적 측면에서 중요함을 가질 것이다.

강릉 문화도시와 예술적 측면에서 경험은 어떠한가? 관노가면극이나 강릉농악, 학산오독떼기, 혹은 강릉단오제의 일련의 예술행위를 보고 들으며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예술행위를 즐기는가? 강릉시립예술단이나 지역미술단체에 대한 인식이 지역주민에게 무한한 문화 자긍심을 가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문화창조 측면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예술단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또 다른 무엇을 창조하려고 하는가? 골목길 오래된 건축 재창조 하면 되는 것인가?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은 미미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동네게스트하우스보다, 작은 커피숍보다, 셰프 있는 레스토랑보다도 대표 문화공간인 지역 공연장, 미술관이 영향력이 없게 되는 도시. 지역문화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지역문화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물음이다.

현실사회는 급변하는 예술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 확산이 있다고 제시한다. 또, 광고, 건축, 미술, 음악, 공연예술 등 13개 핵심영역을 예술과 문화산업, 첨단정보 산업의 융합으로 창조산업의 범주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토대로 진행되는 지역문화정책속의 문화도시와 예술의 연관성이라면, 지역주민은 그런 문화도시, 창조도시, 예술도시의 혜택과 향유는 누려보았는가? 문화도시 진행과정에서 지역예술 활동 향유권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예술가 예술단체 비중과 관람객인 일반시민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것인가?

결국 가장 근본적인은 예술분야의 각 단계별 사슬구조는 전문성에 기반을 한 특화와 분업의 의미이며, 그에 따른 지원체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지만 문화도시와 예술 측면에서 강릉이라는 도시는 스스로 기본을 하고 있는가?

문화도시 예술현장 공간운영에 잡설

1. 지역 대표 문화 공간(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활성화 위해서는 유아방/놀이방 운영

이 형식 아닌, 강릉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문화 공간 참여 연령 층이 낮아지는 것에 해결될 것이란 믿음. 제반여건이 어려운가?

2. 가장 편한 대중 교통편과 지역 내에서 값싸고 질 높은 레스토랑과 커피숍을 비롯하여 시민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언제나 모일 수 있다면 포틀랜드 환경을 부러워 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공공 문화공간의 정체성 담보가 없는 예술 프로그램은 나중이다.

토론

예술은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최지민

도예가

강릉에서 예술가로 살기

도예가 **최지민**

강릉 제비리 미술인촌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최지민입니다.

강릉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길 바라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지요.

저의 작업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물들의 형상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작품은 강릉에서 지내며 느낀 감정들을 담은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강릉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움으로 다가와서 인거 같습니다.

어제의 바다에는 없던 친구가 한명 더 생겼고 어제의 바다에는 없던 가족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상에서 살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소비하고 산다고 합니다. 아마도 삶을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노력의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에서 삶에 원동력을 찾는이가 예술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순수창작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협회전, 미술관에서 기획한 기획전시, 특정그룹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는 그룹전, 미술품을 팔기위한 아트페어에 참여하거나 개인전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 예술활동을 통하여 작가들이 생계유지가 될까요? 작품활동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전업작가들이 제 주변에도 많지 않거니와 실제로 소수일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요.

예술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와 예술계 내외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때 예술가들도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기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인 작가들은 작품을 이용하여 상품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SNS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문화를 이용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예술가가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운이 좋게도 강릉은 과거로부터 문화유산과 역사가 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근래에는 커피와 두부같은 먹거리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지역 예술가와의 콜라보 작업을 통한 강릉에만 있는 독특한 상품제작을 하거나 거리 벽화나 벤치 등의 공공 조형물등을 제작하여 강릉만의 풍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오픈하여 작품을 미술관이 아닌 작업실에서 관람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강의가 시작되고 체험 할수 있다면 예술가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식을 확장하여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수요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술가가 자립할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트렌드의 확산에 대응할수 있는 작가들의 교육이 우선 제공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은 무엇인가?

김재현

아트컴퍼니 해랑 대표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은 무엇인가?

아트컴퍼니 해랑 대표 **김재현**

2014년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문화도시 조성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그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에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도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지역문화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종철 2014)

하지만 문화도시는 단지 문화와 예술이 갖춰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이 효과적인 문화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문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도시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온 삶, 이미 하고 있는 삶속에서 어떠한 매개체가 마중물이 되어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도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문화도시에서의 예술적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끊임없는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은 무엇인가?

강릉의 시민들이 문화도시에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도시의 과정에서 문화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매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지역예술을 활용하여 강릉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술인과 시민들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강릉은 예로부터 <역사와 예술의 도시>라고 한다. 또한 문화유산의 도시라고도 한다. 지금 강릉은 영화, 커피, 단오, 유·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 등 여러 방면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강릉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명맥을 이어갈 뿐 문화도시

의 관점에서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볼 때 문화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이 문화적 가치와 예술을 추구해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방법은 다양한 문화도시의 사례를 통해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지역주민들이 직접 가이드가 되고 문화유산 활성화에 가담하게 하는 것!

둘째 문화도시의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예술(미술, 공예, 문학, 역사, 연극, 무용, 국악 등)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셋째 특정 축제, 행사등을 개최하여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관광을 위해 식당, 호텔, 서비스업, 편의시설 및 관공서, 공공기관, 예술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주체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지역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자발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론

문화도시는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류성호
문화기획자

예술은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화도시는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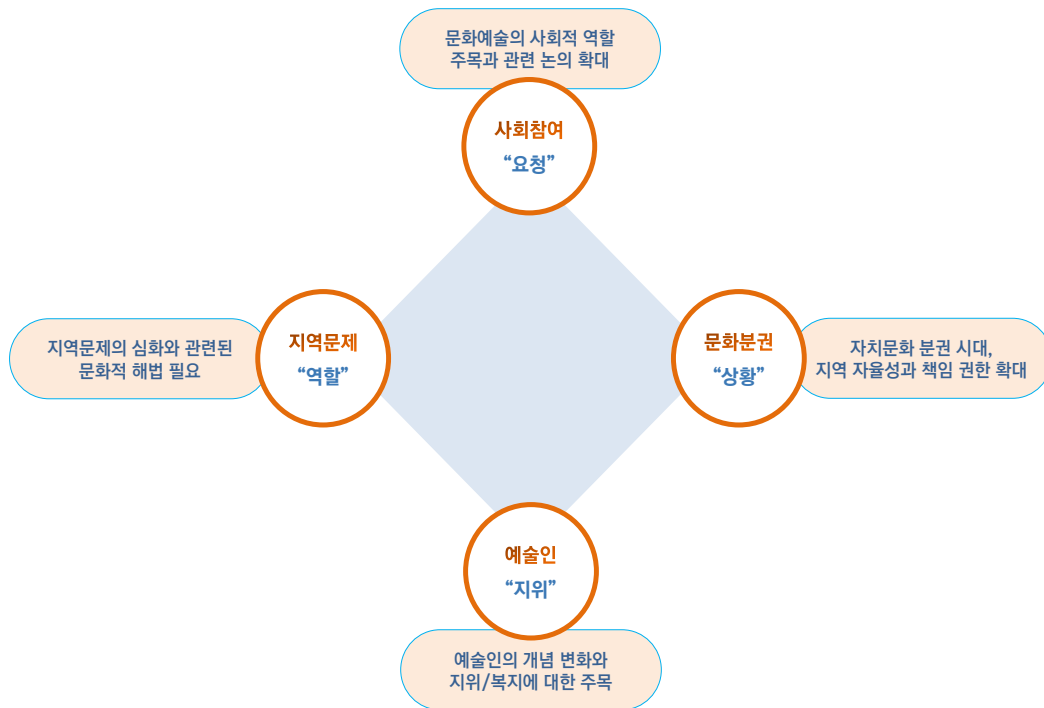
류성호 artbefree@gmail.com

사회변화와 문화의제 - 예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요청의 증가

분야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도시	
주요 변화 상황	 고령화	 다문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사회	 지식기반산업	 대안경제 등장
	 네트워크화	 IT기반 융합	 환경오염 증가	 대안적 라이프스타일	 도심노후현상	 지역화 - 마을화
변화에 따른 사회이제	세대간 갈등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고립과 분열, 혐오	다종의 플랫폼 형성	산업구조 전환의 가속화	사회 공공경제
	자기 계발의 욕구	대안적 삶과 공동체 활동	도시 관광의 증가	지역별 특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네트워크	재생과 활용의 문제
예측되는 문화의제	 소통과 돌봄의 공동체 문화 육성	 지역사회 공동 네트워크	 자기계발 욕구 대응	 문화 여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삶	 사회적 배려와 연결, 존중의 문화와 실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와 기회 창출
	 상상력 강조와 발현 기회의 제공	 새로운 창작과 제안 으로서의 예술 실험	 관광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제안	 지역특화와 장소 마케팅 활성화	 지역 문화 정체성 주목	 지역 가치를 재고하는 문화적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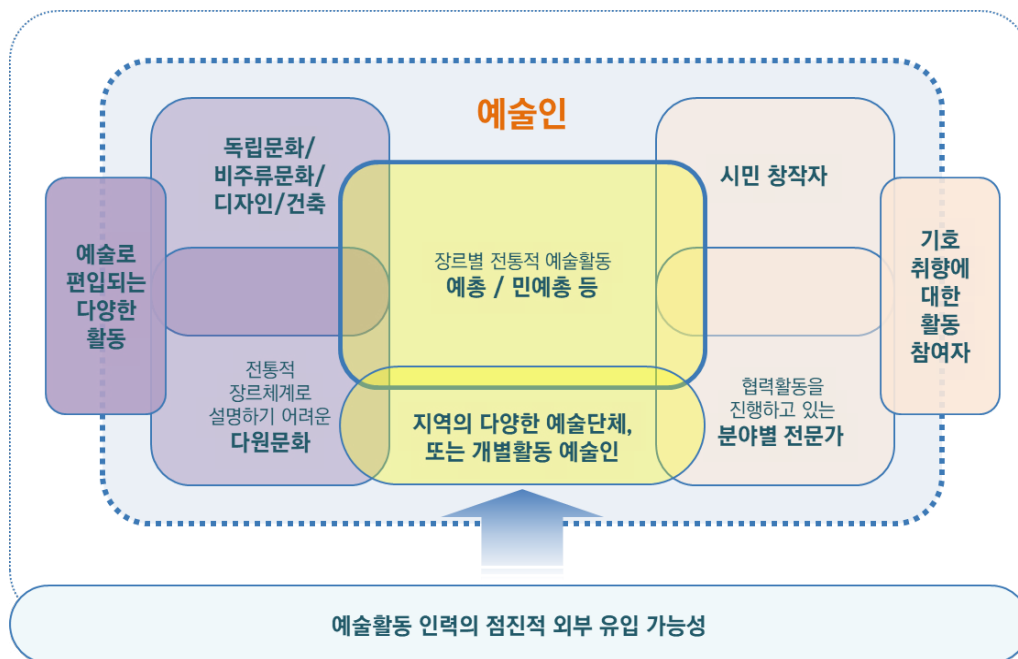
'2030 서울 문화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중 '서울의 미래와 주요 문화의제' 내용 인용

지역 예술인들과 관련된 주요 상황이자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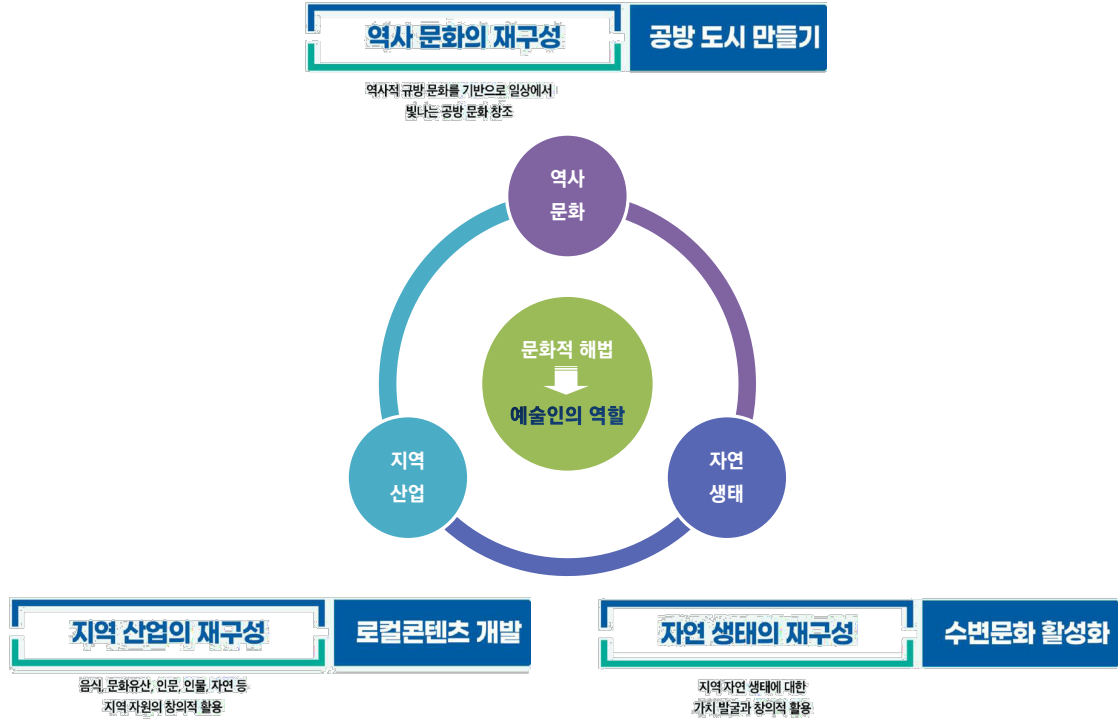
출처 _ 2020 포항예술인비전

지역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인력 이해 범위 변화



출처 _ 2020 포항예술인비전의 부분 재구성

강릉 예술인들에게 요청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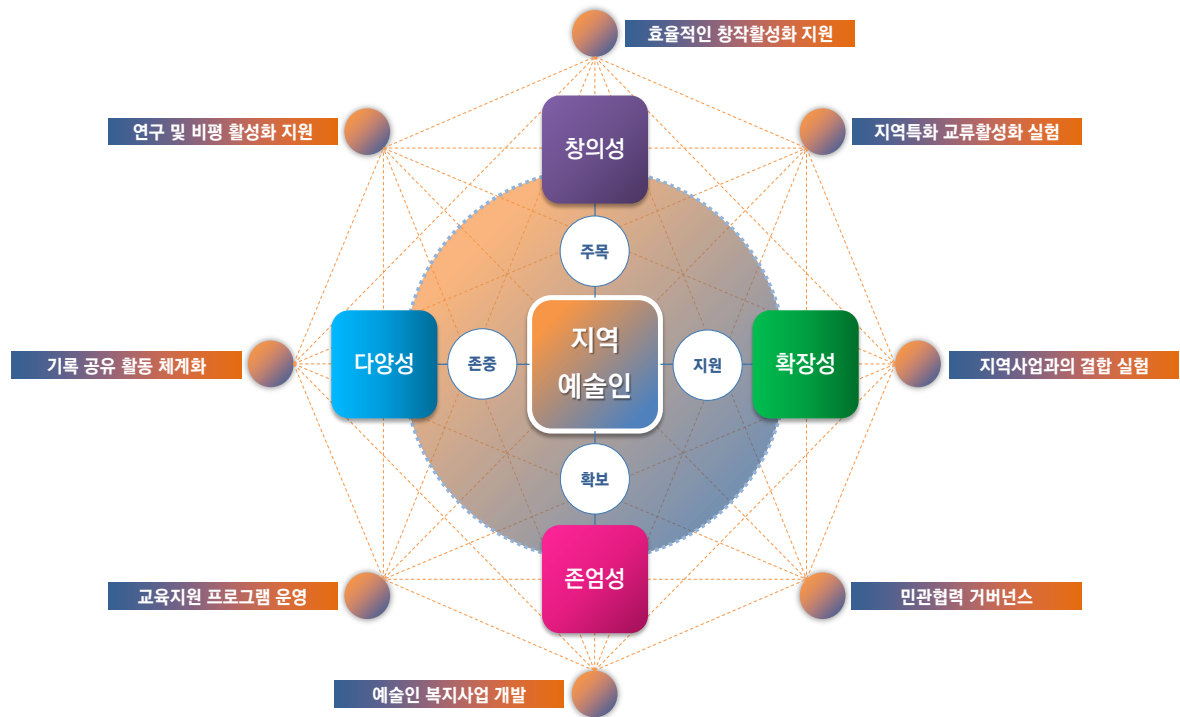
출처 _ 2020 포항예술인비전 내용 일부 재구성

예술인들의 지역활동 강화를 위한 직무 유형

직무유형	유형소개	유형예시
조직문화	조직의 문화 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예술적 개입	문화향유, 조직 내 워크숍 기획, 동아리 및 동호회 지원, 공간개선, 팀 문화 투영과 혁신, 예술적 워크숍을 통한 팀워크 문화 증진 등
인력개발	조직원의 인적 역량강화(HRD)를 위한 예술적 개입	HRD, 조직원 창의력 강화, 담당 직무별 역량 강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등
제품 / 서비스	제품/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예술적 개입	제품/서비스/생산기술 R&D, 제품/서비스 기획, 생산라인 효율성 강화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리)브랜딩, 기업의 제품/서비스 등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 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예술적 개입	기업 스토리 개발, 슬로건 기획/개발, 기업캠페인, 팀 주제음악 작곡, 제품/서비스 브랜딩, 제품/서비스 프로모션 등
공동체 문화	지역 주민 간 상호관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지역 주민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술적 반상회, 우리동네 이야기 등
주민역량강화	지역 주민의 개인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지역 동아리 프로그램, 실버세대 재취업 목적 역량 강화 등
지역공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재생을 위한 예술적 개입	공간 활용 프로그램, 공간재생을 통한 주민전용 쉼터 조성 등
지역특성화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차원에서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원, 지역성을 기반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목적에의 예술적 개입	특산물 브랜딩, 시장 특성화, 관광상품개발, 지역 브랜딩, 지역 스토리 개발 등
자원재생	기업이나 지역에서 폐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에 예술적 개입	폐자원을 활용한 신사업개발(기업), 폐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나 특정 커뮤니티와 리/업사이클링 캠페인(기업), 폐자원을 활용한 마케팅(기업), 지역의 폐자원(공간, 시설, 폐기물 등의 리/업사이클링(지역)
기타	기타 예술인들의 창의적 해석과 접근이 필요한 활동, 예술 분야의 테크닉 등을 활용하거나 변형해 적용하는 다양한 활동에 예술인들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_ 예술인파견지원사업 _ 예술인직무유형 자료 중 발췌

문화도시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과 조건



출처 _ 2020 포항예술인비전

토론 주제 제안

예술이 문화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술인들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해할 수도 있음

시대 변화와 지역 상황을 예술인들이 이해하고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어 능동적 참여/결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과 단계의 설정 필요

- 조사/관찰 – 시대와 지역 읽기
- 이해/공감 – 역할의 발견
- 학습/개발 –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 제안/실천 – 지역 활동

